

제15강: 중세의 기독교와 그 발전 I

◆ 1교시: 예수와 바울

▲ 기독교의 시작

오늘은 지중해 세계의 기독교화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중국하고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인제는 저쪽의 지중해로 와서 지중해 세계의 중세를 보겠습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예수의 사상을 기독교로 변형시킨 사람은 바울이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로마시민이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라 부르는 그 종교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만든 사람은 예수라기보다는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티교지만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스스로는 자기가 어떤 새로운 종교를 창안한다거나, 유태교를 부정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아니고 단지 예수는 유태교의 한 선지자로 유태교의 도덕적 타락을 경고한 사람이죠. 말하자면 유태교의 어떤 도덕적인 몰락을 고쳐 불려고 한 사람이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결코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태교의 율법. 율법이란 것은 모세가 받은 거죠?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야훼라는 신에게서 받은 건데, 그 율법에 대해 철저히 믿었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유태교를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유태교를 부정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내세워서, 예수를 유태교의 한 선각자가 아니라 유태교로부터 완전히 이탈하는 사람으로 내세움으로써 특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서사를 가지고 기독교라는 것을 창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원래 ‘크리스토스christos’죠. 희랍어의 크리스토스의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아죠? 메시아라는 것은 유태문화에서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보고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인데 바울이 예수를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일반명사에서 고유명사로 바꾸죠. 크리스토스는 원래 일반명인데 그것을 ‘크라이스트’라는 성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Jesus christ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고유명사를 만들어서 예수를 교주로 삼았던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은 원래는 반기독교 입장이어서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을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계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갑자기 거꾸로 기독교 전도사로 변신한 사람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나면 ‘케리그마kerigma’라 그러지요. 말하자면 계시를 받아

가지고 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한 불연속으로 놓은 게 아니고 유대교를 구천계법이라고 하고 기독교를 신천계법이다 라고 놓죠. 그래서 구천계법은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지만 신천계법은 복음을 가지고 다스린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리’, ‘에반겔리온’, 이로서 이른바 유대기독교 전통이 전개됩니다.

이 유대기독교 전통이 그리스 로마전통,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 그 다음에 오리엔트 지방의 여러 종족의 동방종교들과 복잡한 연관성을 맺게 되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생각이 예수 자신은 어떤 행동의 인물이고 실제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친 사람이지만 어떤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예수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산상수훈(山上垂訓)같은 단편적인 말들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지 예수가 무슨 이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상을 제시한 적은 없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바울에게서 원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 바울의 세상 인식

근데 바울은 현실을 극단적으로 악으로 파악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바울 혼자만의 생각이기도 물론 하지만 넓게 보면 그 당대의 지중해 세계에 널리 퍼진 생각이예요.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말세의 사상이지요. 세상이 끝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바울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중해 세계의 갖가지 종교가 대체적으로 어둡고 비관적이고 굉장히 악이라고 하는 것에 질게 몰들어 있죠. 그런 분위기에. 그런데 인제 바울도 역시 상당히 현실을 기본적으로 악으로 파악하죠. 악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것과 맞물려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죄로 파악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로 파악하는 겁니다.

죄지은 존재! 이 때 당시에 여러 종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공유했죠. 예를 들어서 도교 같은 것도 서유기 읽어 보면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모시고 사역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저팔계도 만나고 사오정도 만나잖아요. 근데 저팔계나 사오정이 원래 어떤 존재들입니까? 원래 천국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던 존재였죠?

그리고 손오공이 사역으로 가면서 만났던 괴물들도 다 사실은 천상의 존재였지요. 그런데 천상에서 죄를 범해서 지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른바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타락천사 종류지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천사나 영혼, 다른 동물은 뭐, 그렇다 치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혼이 원래 천기에 있을 적에는 좋았는데 뭔가 죄를 범해 가지고 육신 속에 이렇게 떨어졌단 거지요.

이런 식의 생각은 도교에서도 물론 발견되지만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는 중요한 하나의 테마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현실, 이 세계,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계를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선행을 베풀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은 성리학 같은 것은 그런 철학이죠.

인간이 인육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에겐 도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나감으로써 선한 존재가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깨달음, 수양, 어떤 노력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이 있고.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아무리 자기가 번 돈을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온갖 선행을 해도 율법을 전혀 안 어기고 살아도 구원이 안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타력으로 구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어떤 그 무엇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타력구원의 생각이예요.

그와 같은 타력의 원천은 물론 신이죠. 물론 신이고 그 신이 말하자면 죄지은 존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이라는 개념이 바울이 발명한 핵심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이든 잘 되면 은총 받았다고 그러죠. 뭔가가 잘 풀리면. 그래서 바울은 율법 중심주의를 거부하죠. 어떤 객관적인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유대교의 율법 중심주의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따라서 살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영혼이 실체적으로 - 바울이 이런 말은 안 썼지만 굳이 말한다면- 싹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어찌 보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소크라테스는 영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영혼 얘기 할 적에는 그 사람이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존재론적 주장을 한 게 아니예요.

인간에게 그런 활동이, 생각할 수 있고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등 그와 같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 까지만 얘기한 거지 여기에 좋이가 있듯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 따로 있다, 물질 내에 라는 그 주장을 소크라테스는 명확히 한 적은 없어요.

그런 주장은 누구한테 적용됩니까? 그것은 플라톤이 하죠.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죠.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이분법!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오르페우스 내지는 피타고라스의 종교에서 나온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나 소피스트들이 훨씬 더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오히려 플라톤은 오르페우스, 피타고라스적인 종교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플라톤에 가까운 건데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 달라질 수 없어. 그 사람의 영혼이 싹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해짐으로써 선한 영혼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활동하고 선해 짐으로써 내 영혼이 선해 지는 게 아닌겁니다.

그 결과로 내가 됩니까?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어요? 예컨대 내가 있는데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혼이 선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은 딱 어떤 실체이고 행위와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로 됩니까? 내 영혼이 싹 바뀌어야 그 결과로 내가 됩니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근데 영혼이 싹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됩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타력의 종교를 세운겁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베푸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좋은 곳에 있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진,선,미가 다 됩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인간의 귀중한 것입니다.

그게 제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다 인간의 가치지요. 근데 신의 가치는 아예 그것하고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음미해 보세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은총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핵심은 뭐예요? 믿는 거지요.

신앙이죠. 신앙 절대주의죠. 그리고 바울이 이런 식의 영혼론을 전개한 데에는 역시 됩니까? 예수의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참회를 해야 된다. 다 죄인이니까.

참회를 해야 한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도를 닦는다가나 자기를 반성한다거나 되돌아보는 것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도를 닦고 깨달음을 얻고 뭔가 반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지적인 거지요.

근데 참회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들 보면 막 눈물 흘리고 바닥에 엎드리고 울고 굉장히 참회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자기의 죄, 그 어둡고 더럽고 견딜 수 없는 그 죄의 참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성한다는 것과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성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참회한다는 것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참회하는 게 아니죠. 오로지 뭘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만이 참회를 한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태도는 이성과 신앙이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이성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요새 어떤 논쟁을 낳느냐 하면 이성과 신앙이라는 것, 믿음과 앎이라는 이 문제를 낳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중세의 짧게 보면 1000년, 길게 보면 1500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배했다고 볼 수 있죠.

◆ 2교시: 바울 이후 기독교 사상의 전개

▲ 예수 사후의 기독교의 전개

바울의 사상으로는 로마서가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많은데 바울은 체계적인 저작을 안 남겼어요. 남기지 않고 주로 이 사람은 전도 행위에 몰두한 사람인데 단지 편지가 남아있지요.

그것도 이 사람이 일부로 쓴 게 아니라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쓴 건데 예컨대 코린토에서 쓴 것은 고린도서, 에베소에서 쓴 것은 에베소서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가 이 사람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사상은 체계적이지는 않고 모순된 말도 많고 모호한 말도 많지만 어쨌든 그 후에 기독교의 기본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계승돼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사람인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바울이 이해되어지고 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죠.

사상사라는 건 참 재미있죠? 어떤 사람의 의미나 영향력이라는 게 꼭 그 사람에 의해서만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요. 바울 때문에 예수가 살고 또 아우구스티누스 때문에 바울이 살고. 이런 식이지요.

예수 몰 후, 약 반 세기가 지난 70년경에 예루살렘의 반군들은 로마의 공격을 받고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해 반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70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태인 사회 내지는 기독교 사회가 엄청나게 흔들리면서도 변화하게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를 즈음해서 복음서들

이 쓰여 있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 상 로마에 패배한 유대 기독교 계통 사람들이 어떤 자기네들을 재건하는 구심점으로 예수라는 생애를 갖고 온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래서 이 때 인제 우리가 아는 마태,마가,누가,요한 이 4개가 쓰여 지고 훗날 그 4가지 복음서들이 신약으로 불려요.

이것은 뭘 함축합니까? 그 전의 유대교 전통은 구약이 되는 겁니다. 신약, 구약! 이 번역에서 잘 나타나지만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약속이에요. 신과 인간의 계약! 너는 나를 믿어라. 나는 너를 돌보아주겠다 라는, 신과 인간 사이의 정확히 하면 유대인이, 신과 유대인 사이의 계약이에요.

이때를 즈음해서 예수의 생애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뚜렷한 학파나 제자를 키워서 그대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예수가 무슨 체계적인 사상을 전개한 것도 아니고 예수가 죽은 다음에 반세기 지나서 말하자면 부활 시킨 거잖아요. 담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면 예수를 끌고 들어온다는 그것만 같지 사상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끌고 들어오되 무엇을 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남긴 말은 몇 마디 밖에 없죠. ‘니 이웃을 사랑해라.’, ‘니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 밖에 없던 말이에요. 체계적인 사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재료로 한다는 것만 같지 그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다 다른 겁니다. 예수의 얘기, 일생, 그 다음에 그리스철학, 유대교 전통, 그 다음에 오리엔트 집안의 수많은 이란계통이나 이집트계통, 메소포타미나 등 수많은 종교가 짬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니 헬라파니 그리스파니 마니교니 등등 해서 예수를 끌고 들어오지만 그 사상의 내용은 천차만별 무수한 기독교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엄청난 서사들이 등장해요.

예수를 재료로 한 온갖 형태의 서사들이 지중해 세계에 난무하게 되죠. 그러다가 초기 교회를 만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른바 orthodox, 정통 이단으로 갈라지죠. 근데 뭐가 정통이 되고 뭐가 이단으로 되는 것은 무슨 철학적으로 논증을 한다거나 이론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거나 학문적으로 무슨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거의 다 90%는 정치적인 것 때문이었어요.

그 때 당시에 학파들의 권력의 힘이라든가 로마와의 관계라든가 대중들에 대한 설득력이라든가 온갖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정통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고 논증이 되어 가지고 그게 정통이 되는 게 아니죠. 거의 90%는 정치적인 문제로 봐야 되요.

유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무제나 이런 사람들이 유교가 더 좋은 철학이라고 생각해서 채택한 게 아니죠. 당대에 통치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불교가 세력이 커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힌두교를 가지고 재정립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중세에 사상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철학적이거나 철학보다는 종교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 두 세기 동안은 비공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죠. 로마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였어요. 로마는 철저하게, 로마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지배했잖아요.

근데 지중해 전체의 종교라는 게 수백, 수천이 되는데 로마가 그것을 통일한다거나 자기네들의 것을 강요하지 않죠. 종교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여했는데 기독교는 처음에는 공인을 못 받아요. 왜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황제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그런 전통을 기독교는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202년에는 이른바 반기독교법이 반포되었고 주기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디오클레티아노스의 박해는 유명하죠?

그래서 박해라는 게 계속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소원했다가 무슨 사건이 터지만 다시 확 박해하고 이런 건데 그런데도 그 때 당대의 기독교들을 못 꺾죠, 로마가 꺾지를 못해요. 종교 역사에서 이 초기 기독교도들만큼 강인한 신앙을 보여준 예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죽고 불에 타 죽고 일가가 몰살당하고 하는 데도 끝까지 버틴 정말 종교 사회에서 가장 투철한 신앙을 보여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 박해를 해도 기독교를 못 꺾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결국은 로마 종교보다는 오리엔트 종교가 인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뭐니까? 공식종교는 유교지만-유교는 종교와 철학의 중간이 되지만-실제로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도교나 불교를 좋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류 계층의 공식 종교는 로마정교예요. 비너스, 주피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중들한테는 오리엔트 종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미트라교, 신피타고라스교, 오르페우스교,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 로마에서 유래한 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오리엔트 지방의 종교가 인기를 끌어요.

▲ 기독교 특세 이후의 전개

그러다가 점점 로마의 상류계층까지도 기독교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이러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는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와 양립 가능했어요. 물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로마라는 거대한 땅 덩어리에서 무수한 종교가 양립했죠.

같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절대로 타종교와 양립불가했어요. 기독교 교리 상. 기

독교 교리 상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용납할 수 없는 종교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면 그때까지의 무수한 종교들과 기독교 사이의 투쟁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는 곳에 항상 피비린내가 나오. 역사를 보면, 유대,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한 계통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유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오고-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 불교도하고 힌두교도하고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거든요?

중국에서 도교도하고 불교도 전쟁을 했다는 것도 우린 없죠. 근데 이상하게 이 유대 기독교, 이슬람 이 계통,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이 계통은 왜 이렇게 그런지 .이 계통은 항상 피비린내가 나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지금도 똑같아요. 참 묘하죠?

타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그런 종교고 그런 성격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 교회는 유대교 및 희랍철학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 때 당시에 무수한 종교와 신앙이 있었지만 제일 강적은 뭐니까? 강적은 역시 유대교와 희랍철학이죠. 희랍철학은 국가와 종교에 관계없이 그 지중해 세계의 전체를 지배하는 교양이었다면 -희랍의 사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교양이에요.-

유대교는 뭐니까? 기독교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교와 희랍철학 이거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가냐 의 문제죠.

그런데 유대교하고는 역사적 관계를 맺고 희랍철학과는 철학적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하고는 역사적 관계를 맺죠. 기독교는 유대교를 자기네들의 전사(前史)로 만들죠. 기독교를 예비한 어떤 전사로 만들어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유대교를 구약으로 만들어요. 물론 이걸 뭐니까? 물론 기독교 입장이죠.

유대교가 '우리는 구약이고 너희는 신약'이라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니죠. 그렇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으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된 신약을 유대교는 안 믿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는 개념은 기독교 쪽에서 유대교를 포섭한 거지요. 유대교 자신들이 기독교의 이런 틀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아니죠.

그 다음에 희랍철학하고는 희랍의 철학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기독교 신학을 구성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탄탄한 학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한 민족이 겪은 구약은 유대인이 겪은 역사고, 신약은 예수라는 한 사람의 업적을 쓴 거지, 거기에 특별한 학문적인 뭐가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을 뭔가 다듬으려고 하니까 희랍철학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희랍철학을 갖고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 기독교의 히브리즘과 그리스 로마의 헬레니즘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반면 과도한 상상력이 가미된 사상들이 이단으로 배척됩니다. 이 때 당시에 지중해 세계에 범람했던 종교를 보면 상상력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진짜 소설적이죠. 요새로 말하면 꼭 판타지영화 같은 거죠. 반지의 제왕은 저리 가라입니다.

희한한 서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때의 판타지를 많이 이용하죠. 그만큼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것들을 이단으로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고급 종교화되요. 기독교라는 게 그런 소설적인 것을 가능한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서부터는 수준 있는 고급 종교로 되죠.

그리고 아울러 로마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로마법정신의 존중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나가죠. 서서히 로마의 상류층 사회에 침투해서 그 사람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뜨는 430년까지 이어지는 이 사상을 교부철학이라고 해요. 이 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의 서사가 만들어지죠. 구약, 신약을 통괄하는 거대한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험적으로 본다면 붓다는 한 사람이죠. 붓다, 한 사람이 인격과 설법으로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그게 어떤 현상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소설처럼 만들어지잖아요.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붓다가 만세까지 계속 있었다는 등, 온 지역에 붓다가 다 퍼져있다는 니 붓다가 심지어 진능해서 몇 십 년을 물릴 수 있었다는 등 별 희한한 얘기가 다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은 원래의 붓다와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거죠.

일단 권력을 잡게 되면 항상 과거에 대해서 희한하게 포장하려는 욕망이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유대교의 타락을 경고하면서 자기 몸으로 행동한 사람이지만 예수가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기독교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서사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약에 충실해요. 충실한데 거기에다가 당대의 희랍철학,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종교들, 온갖 것들을 다 짬뽕 시키죠. 그래 가지고 소설적인 상상력을 엄청나게 가미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담의 이마에 떨어졌다는 등 별 희한한 것들을 가미하죠. 십자가는 무슨 또 생명의 나무다 라고 하고 우주목이 등장해 우주와 동일시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학으로 보면 황당한테 소설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존 밀턴의 『실낙』 읽어 봤나요? 대서사시죠. 그게 이것을 가장 멋있게 나타낸 거예요. 악마들이 나와 가지고 축제를 열고. 요새로 말하면 판타지, 반지의 제왕 비슷해요. 아주 멋있죠.